

# ‘MVP 도전’ 김도영 “V12 넘어 KIA 왕조 구축할 것”

134경기에서 37홈런-39도루 시즌 최다 135득점에도 도전 정규 시즌 MVP ‘0순위’ 후보 “욕심 있다... 끝까지 뛰고 싶어”



‘야구 천재’ KIA타 이거즈 김도영이 프로 데뷔 3년 차에 정규 시즌 MVP 타이틀을 노린다.

김도영의 엄청난 활약을 발판 삼아 팀은 137경기 만에 우승을 조기 확정 지었지만 그는 40홈런-40도루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 도전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지난 17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의 기쁨을 맞이했다.

김도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정규 시즌 우승이 실감 나지 않는다”면서도 “형들이 너무 기뻐하고 벅차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형들 반응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구나 싶고,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록 KIA는 경쟁 상대인 삼성이 패배하는 행운이 따르면서 정규 시즌 조기 우승을 확정 지었지만 이범호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의 의지는 대단했다. 자력으로 정상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이날 경기 9회 초까지도 내려놓지 않았다.

김도영은 “선수들 모두 삼성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겨서 우승하자고 했다. 클리닝 타임에도 삼성 상황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늘 경기를 이기자는 생각만 했다”며 “경기 막바지에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잠시 삼성 경기를 보니까 지고



KIA타이거즈 김도영(오른쪽부터)이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에서 네일, 소크라테스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 경기가 먼저 끝나니까 그때는 다들 기뻐했다”고 회상했다. 걸으로는 투덜대지만 김도영을 가장 아끼는 선배 중 한 명인 박찬호는 겉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중계 화면에도 삼성의 경기가 먼저 종료된 직후 박찬호의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 노출됐다.

김도영은 “(박)찬호 형이 제일 기억난다. 경기가 끝나기 전부터 눈물 날 것 같다고 걱정하고 같이 울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울었다”며 “(박)찬호 형을 보면서 우승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김도영은 프로 3년 차에 정규 시즌 우승

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의 개인 성적은 KIA가 올 시즌 줄곧 단독 선두를 달리며 경쟁 팀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이겨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그는 “정규 시즌을 치르며 힘들 때도 정말 많았다. 2022년 5위할 때보다 올해 1

위하고 있을 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것 같다”며 “압박감이 정말 대단했다. 1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싶었는데 강팀에게 강한 모습으로 중요한 경기들을 이겨나가면서 압박감을 극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규 시즌 우승은 확정됐지만 김도영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선수 최초의 40홈런-40도루와 함께 서건창이 보유한 한 시즌 최다 득점(135점) 기록을 새로 쓰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도 의욕을 불태울 전망이다. 올 시즌 134경기에서 37홈런과 39도루, 105타점, 134득점을 생산한 만큼 MVP 역시 가장 강력한 후보다.

김도영은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이다. 달라질 것은 없고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만 더 디테일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즌 전이나 도중에는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욕심이 생긴다. 남은 경기는 감독님께서 출전 여부를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뛰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정규 시즌을 마치고 나면 한국시리즈 우승에도 도전해야 한다. 타이거즈는 11번의 한국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고, 김도영은 처음 나서게 되는 큰 무대에서 왕조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다.

그는 “안 다치고 첫 풀타임을 뛰고 기록도 많이 세운 시즌에 팀이 우승을 하고 KBO 리그가 흥행을 해서 배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1위에서 머물고 싶다. 제가 있는 동안 ‘KIA 왕조’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다짐했다. 인천=한규빈 기자

## 한국 조정, 은 2·동 1 아시아주니어선수권

광주체고 김승현·김정민·서에서(이상 3년)·김지선(2년)이 포함된 한국 조정 주니어대표 선수단이 2024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메달 3개를 수확했다.

18일 대한조정협회와 광주체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1~14일 중국 심양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8명의 선수(김승현·김정민·서에서·김지선·이경훈·오지원·정운서·전유찬)가 출전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광주체고 김승현·김정민·서에서·김지선은 13일 열린 U19 여자 쿼드러플스킬 경기에서 7분02초03을 기록하며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체고 이경훈은 14일 열린 U19 남자 싱글스킬 경기에서 7분30초01을 기록하며 7분29초35를 기록한 중국에 밀려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같은날 광주체고 김정민과 김지선은 U19 여자 더블스킬 경기에 출전해 7분31초9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주니어 선수권 대표팀을 이끈 장현철 감독은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라는 쾌거를 이룬 선수들 모두 수고 많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조정 선수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19개국 38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다.

최동환 기자

## 광주FC, 아시아 무대 데뷔전서 ‘매운 맛’ 보여줬다

ACLE 1차전 요코하마에 7-3 승 아시아 구단 사상 첫 득점·해트트릭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데뷔전에서 역사에 남을 역대급 다득점 승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광주FC는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7-3으로 대파했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오르며 ACLE에 진출, 구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나섰다.

첫 상대는 J리그의 강팀인 요코하마였다. 요코하마는 ACLE의 전신인 지난해 ACL에서 준우승했고, 이번 대회에는 2023시즌 J리그 준우승팀 자격으로 진출했다.

광주는 강팀 요코하마를 상대로 거침없는 공격 축구로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줬다.

광주의 아시아가 전반 2분 선제골과 후반 10분 세 번째골, 후반 추가시간 셋째골 등 3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아시아는 광주 구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서 첫 득점과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아시아는 이날 경기 후 “역사적인 첫 승



광주FC 아시아가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전반 2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동료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리를 했다. 해트트릭도 해서 정말 감사하다. 오늘은 K리그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K리그가 절대약한 리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구성원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경기에서도 오늘처럼 준비하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반 15분 오후성과 후반 24분 베카, 후반 27분 이희균, 후반 30분 가브리엘도 득점포를 가동시키며 축구장을 찾은 홈팬들에게 7-3의 시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

는 한가위 선물을 선사했다.

이정호 광주감독도 경기력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감독은 “오늘 광주의 역사적인 날이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첫 출전해서 첫 경기를 많은 팬들 앞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경기를 했는지는 팬들이 잘 알 것이다. 팬들에게 고맙고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경기를 준비하면서 단분도 매니저가 혼자 일을 했는데, 준비하느라고 생생했다고 전하고 싶다”고 승리 소감을 말했다.

이어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잘 수행했다. 오늘 광주의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 아시아에 알린 계기가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85분까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엔 다소 실망스러웠다”면서 “선수들이 한 팀으로 용기있게 도전했기에 큰 스코어로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다음달 1일 오후 7시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와 리그 스테이지 2차전을 치른다.

최동환 기자